

 국민의힘

구로구청장^{선거}

책자형선거공보

시원하게
막힘없이
과감하게
진격의
구청장

약속을 넘는 계약, 거침없는 구로 개혁!

2 **홍덕희**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구로구청장선거

1. 인적 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2	국민의힘	홍덕희	남	1976.09.08. (49세)	변호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 대학원 수사과학석사 (법정의학)	(현)합동법률사무소예승 대표변호사 (전)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2. 재산 상황 및 병역 사항

재산 상황(천 원)					병역 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108,512	69,743	0	모: 38,769	0	공군 병장 (만기전역)	-	-

3.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 실적 및 전과 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천 원)				후보자 전과 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 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507	0	0	해당 없음
후보자	1,411	0	0	
배우자	0	0	0	
직계존속	96	0	0	
직계비속	0	0	0	

4. 소명서

고 소 장

고소인 41만 구로구민
피고소인 구로의 행정과 정치를 수십 년간 독점하며 성장을 가로막은 기득권들
죄 명 주민 복리 증진 의무 유기 및 구로 발전 방치

고소 사실

1. 주거 환경 개선 방치에 관한 점

피고소인은 구로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인구 구조가 변화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주민들을 낙후된 환경에 방치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2. 철도기지창 이전 희망고문 및 생활교통 불편 방치에 관한 점

피고소인은 선거 때마다 '차량기지 이전'을 약속하며 주민들의 표를 얻었으나, 실제로는 타 지자체와의 협상에 무능함을 드러내며 수십 년간 아무런 진척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당리당락에 이용한 상습적 기망 행위입니다.

나아가 구로역, 신도림, 개봉, 오류, 향동권 등 구로 전역의 고질적인 생활교통 불편마저 외면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퇴근의 고통과 열악한 역세권 접근성을 체감하는 주민들의 삶을 방치한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3. 교육 격차 외면 및 지역 소외에 관한 점

피고소인은 구로의 아이들이 사는 동네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무거운 현실을 방관했습니다. 인근 자치구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대신, 선심성 예산 집행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정든 구로를 떠나게 만든 '지역 경쟁력 약화'의 주범입니다.

결 론

피고소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구로의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주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만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고소인은 41만 구로구민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민심의 법정'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 잘못에 대한 유일한 판결은 '투표를 통한 교체'뿐입니다.

2026년 6월 3일

구로구민의 든든한 법률대리인 **홍 덕 희**

적선하는 '기본사회'가 아니라 사다리를 세우는 '자립사회'로!

구민 스스로 부를 키우고 미래를 개척할 사다리를 복원하는
'구로자립사회'를 계약하겠습니다

양복점 재단사 아버지와 봉제공장 어머니 밑에서 자란 도림천 단칸방 소년.
사채업자에게 감금되어 시달리던 공포를 뚫고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홍덕희의 삶 자체가 '자립'의 증거입니다.

기본사회 거부!!

지금 구로에는 복지의 양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내 집 마련은 멀고, 교육 격차는 커지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며, 소상공인은 버티기조차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갈등과 절차에 막혀 늦어지고, 교육은 지역에 따라 기회 차이가 나며, G밸리의 성장도 청년과 생활경제에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원이 있어도 삶이 잘 펴지지 않고, 사람들은 점점 구로 밖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자립사회 선언!!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구청은 적선하듯 베푸는 곳이 아니라, 구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설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재개발의 속도를 높여 자산 형성의 길을 열고, 교육 사다리를 촘촘히 세워 아이들의 출발선을 넓히고, G밸리와 골목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저 홍덕희는 구민을 수혜자가 아니라 계약의 주체로 보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분께는 더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땀 흘려 일하는 구민에게는 내일을 바꿀 사다리를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홍덕희가 말하는 구로자립사회**입니다.

구로자립사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과 교통 혁신으로 **자산을 키울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둘째, 공공 인강 확대, 동네형 학습 공간, 교육박람회, 진로 멘토링으로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셋째, G밸리 고도화, 기업 법률 닥터, 청년 일자리 사다리, 소상공인 법률 주치의로 **일자리와 창업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자 안심 이주 지원, 통합 돌봄, 원스톱 복지처럼 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는 안전망도 함께 두겠습니다. 자립사회는 복지를 없애는 사회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때는 지키고 다시 일어설 때는 기회를 넓혀주는 사회입니다.

멈춰버린 재개발 '현장 법률 해법'으로 시원하게 돌파합니다

재개발이 늦어지는 핵심은 동의서 분쟁, 조합 갈등, 법적 쟁점의 장기화입니다.
변호사 구청장이 현장에서 바로 진단하고, 답을 내겠습니다

구민의 자립은 안정된 주거에서 시작됩니다. 집이 낡고 동네가 멈춰 있으면 자산도, 생활의 의욕도, 지역의 미래도 함께 묶이게 됩니다. 이제 구로의 재개발은 구호가 아니라, 갈등을 풀고 사업을 움직이게 하는 실무로 속도를 내야 합니다.

1.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치의 제도 전면 도입

구청장 직속으로 법률·건축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분쟁 현장에 즉시 투입합니다. 분쟁 원인을 즉각 분석하고, 갈등 진단부터 법적 처방, 서울시 인허가 통합 심의까지 연계한 '원스톱 현장 처방서'를 발급해 진격의 속도전을 펼치겠습니다.

2. 재개발 속도는 높이고, 세입자 불안은 줄이겠습니다

재개발은 추진하되 세입자가 손해 보는 개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입자 안심 이주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계약서 검토, 등기부·건축물대장 점검, 전세사기 의심 매물 상담, 임대차 분쟁 생활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3. 재정착까지 책임지는 구로형 주거 안심 제도

서울시·SH와 협력해 순환형 임시 주택과 공공 임대 연계를 통한 재정착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 세입자를 위한 이사 동행, 계약 검토, 하자 확인 같은 생활 밀착 지원도 강화해 개발의 속도와 주거의 안전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기약 없는 이전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능한 해법부터 실행해 구로의 교통과 생활 동선을 바꾸겠습니다

교통의 불편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 교육 접근성, 상권의 활력, 동네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생활의 기반입니다. 이제 구로는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움직이는 교통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 구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즉시 협의하겠습니다.

이전만 기다리기보다 기지창 상부를 덮고 그 위 공간을 활용하는 단계적 실내화와 상부 데크 입체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음·분진·도시 단절 문제를 줄이고, 상부 공간은 대형 녹지·문화예술·생활체육·미래산업 공간으로 전환해 구로1·2동과 인접 생활권을 다시 잇는 입체 복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녹지존, 문화존, 스포츠존, 상업·미래산업존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구로의 성장축을 조성하겠습니다.

2. 철도 거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봉역 복합개발과 GTX-B 환승 연계체계를 추진하고, 동인천 특급열차의 개봉역 정차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구로선과 제2경인선도 서울 서남권 철도 소외를 해소하는 핵심 과제로 삼겠습니다. GTX-B 환풍구는 주거지 인근이 아닌 적합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코레일·국토부와 즉시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주민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한 입지 조정을 구청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3. 도로와 역세권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목감교 4차선 신설, 가리대교 4차선 확장, 남부순환도로 진출입 개선, 구로IC 진입 구간 도로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로역은 동서 측 출입구 신설, 역사 증축, 보행 동선 개선까지 챙기고, 신도림역-구로역 일대 철도 지하화도 특별법 반영 과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 구로역 일대 교통 체계 재정비와 생활교통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로역 일대의 문제는 지금 존재하는 지하차도와 평면 도로 구조에서 생기는 병목과 단절입니다. 이제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로역지하차도 평면화 가능성을 포함한 교통 체계 재편 방안을 마련하고, 버스·승용차·보행 동선을 함께 재설계하겠습니다.

5.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접근성을 높ی겠습니다.

고척·수궁·오류·항동 등 철도 소외 지역을 위한 구로형 연계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항동·개봉·고척권의 목동 학원가 접근 버스 노선을 신설·증편하고, 수궁·오류권의 신도림·구로역 접근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고척로 일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5호선·7호선 연결 신설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 떠나는 도시에서

내 아이를 위해 돌아오는 도시로!

교육 격차는 단지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시간과 비용, 아이의 기회, 가족의 정착 여부까지 좌우하는 도시의 미래 문제입니다. 이제 구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믿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1. 공공 교육 사다리를 촘촘히 세우겠습니다.

목동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 교육 사다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항동-목동 교육 교통 노선을 신설·증편하고, 신도림-구로역 일대를 미래 교육 지원 벨트로 조성해 교육 접근성부터 바꾸겠습니다.

2. 구로형 공공 인강과 동네형 학습 공간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구로형 공공 인강 지원을 현행 연 400명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중·고생에서 예비중학생, 재수생, 취약계층까지 넓히겠습니다. 내신형, 수능형, 코딩·디지털형, 진로탐색형 등 맞춤형 트랙을 운영하고, 자치회관·도서관·평생학습관·유희 공공시설을 활용한 동네형 학습 공간도 확대하겠습니다. 항동·개봉·고척 등 교육 수요 밀집 지역에는 저녁형 공공 학습 공간과 자율학습실, 스터디룸, 입시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 구로 교육 박람회와 G밸리 진로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양천구 Y교육박람회처럼 구로 교육 박람회를 열어 진로·진학·디지털교육·학부모 상담을 한자리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또 G밸리 기업 연계 진로 체험, 디지털·AI·코딩 교육, 대학생·직장인 멘토단, 학습멘토링, 학부모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 진로 사다리를 촘촘히 세우겠습니다.

4.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은 한국어 학교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어 집중 교육, 방과후 언어 지원, 학교 적응 프로그램, 학부모 소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는 일은 일부 학생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로의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첨단 산업과 스마트 물류의 심장, 다시 뛰는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G밸리는 '사이버 보안' 허브로, 동부제강은 '첨단 물류' 거점으로!

경제의 자립은 복지 이전에 일자리와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구로는 G밸리와 공구상가, 중앙유통상가, 물류와 제조 기반을 모두 갖춘 도시이지만, 그 잠재력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구로 경제는 낡은 산업단지의 연장이 아니라, 첨단기술과 제조·유통, 청년 일자리가 함께 뛰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1. 동부제강 부지 복합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오류동 일대 동부제강 부지는 서남권 산업·물류 재편의 핵심 거점입니다. 행정 협력 속도를 높여 노후 부지의 복합개발을 촉진하고, 첨단 물류·유통 기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뤄지는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 G밸리를 사이버보안 특화 거점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G밸리를 AI·데이터 산업에 더해 정보보호·사이버보안 특화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정보 보호 전문 인재 양성, 보안기업 성장 지원, 공공 실증·구매 연계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거점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3. G밸리 기업 법률 닥터와 청년 일자리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법률·특허·노무·세무·회계가 결합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계약 분쟁, 기술 보호, 상표·특허, 노동 문제,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동시에 G밸리형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마케터, 데이터, AI, 정보 보호 직무 중심 교육부터 인턴십, 정규직 전환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취업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청년의 매칭 데이 정례화와 포트폴리오 컨설팅도 강화하겠습니다.

4. 구로공구상가와 중앙유통상가를 제조·유통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간판 정비, 보행 환경 개선, 주차·물류 동선 정비,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대료 급등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기존 상인이 밀려나지 않도록 상인회·건물주·구청이 함께하는 상생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구·부품·산업재 유통 특화 거리 브랜딩도 추진하겠습니다.

5. 화이트존과 혁신 클러스터로 구로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계획과 연계해 공간 혁신 구역, 이른바 화이트존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로역-공구상가-G밸리를 잇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형 제조·물류·R&D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행정 울타리를 세우겠습니다

구민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키우는 촘촘하고 영리한 스마트 복지

복지는 단순히 예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하는 일입니다. 의료와 돌봄, 안전이 따로 놀면 주민은 제도를 찾아 헤매고, 행정의 문턱 앞에서 더 약해집니다. 이제 구로는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실제로 지켜주는 생활밀착형 복지와 안전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고대구로병원 새 암병원 건립과 병원 확장을 적극 행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로성심병원 등 지역 2차 병원의 기능 보강과 생활권별 전문 클리닉 확충을 유도하고, 구로 서남부 생활권에는 2차 병원 및 전문 클리닉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2. 구로형 통합 돌봄과 원스톱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과 돌봄 공백 가구를 위해 안부 확인, 식사 지원, 병원 동행, 가사 지원, 긴급 돌봄을 연계하겠습니다. 퇴원 환자와 거동 불편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을 끊김 없이 연결하고, 신청 한 번으로 돌봄·의료·주거·긴급 복지·민간 자원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3. 산후조리와 출산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높은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에는 우선권과 감면 혜택을 제공해, 구로가 출산부터 책임지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 자립을 돕겠습니다.

저소득·영세 어르신부터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해 병원, 전통시장, 복지관 이동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지원도 강화해 바우처 택시, 보조기구, 편의시설,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일 자리를 촘촘히 연계하고, 이동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생활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5. 스마트 치안으로 안심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세권, 골목길,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에 스마트폴, 스마트 보안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확대해 범죄 취약 지역의 이상행동을 자동 감지하고 관제 센터와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안심귀가길, 통학로, 골목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내외국인 합동 순찰대 운영과 다문화 갈등 조정 센터 설치로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넓고 정체된 구로의 이미지를 바꾸고 머물고 싶은 도시의 품격을 세우겠습니다

일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즐기고 다시 찾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아파트 값이나 도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시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지, 저녁과 주말이 살아 있는지, 외부 사람이 다시 찾고 싶은지가 결국 도시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제 구로는 넓고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활기차고 세련된 생활문화도시로 다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1. 구로 브랜드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구로의 새 이름과 새 이미지는 주민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투표 절차까지 임기 내 추진하되,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구청장 혼자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2. 생활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척돔, 역세권 광장, 도림천·안양천, 지역 상권을 연결해 저녁과 주말이 살아나는 생활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가족형 공연, 청년 문화, 야외축제,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구로를 '일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즐기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3. 국제생활권을 다시 디자인하겠습니다.

가리봉동·구로동 등 외국인 밀집 생활권의 보행환경, 간판, 조명, 공공디자인, 생활 안전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서래마을처럼 정돈되고, 신오쿠보처럼 활력 있는 국제생활권이자 매력적인 국제 상권으로 재편하겠습니다.

4. 가리봉동 글로벌 푸드 투어를 키우겠습니다.

다문화 음식 자원을 활용해 건대입구 양꼬치거리처럼 내외국인 모두 찾는 거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국제생활권을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니라, 구로의 새로운 매력과 상권 성장의 자산으로 키우겠습니다.

구로 갑 행정계약서

구로의 고민 현안,
'동네별 맞춤 법률 처방'으로 확실히 풀겠습니다

고척1동 "고척돔이 내생활과 연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 개봉역 복합개발과 고척아이파크몰-개봉역 간 지하도로 연결 추진
• 구로1번 등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정비와 고척근린시장 환경 개선·상권 활성화
• 재개발 속도전 — 변호사 구청장 직접 법률 현장 투입
• 고척돔 가족형 프로그램·야외광장 생활문화 정례화

고척2동 "고척근린공원,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까"
• 고척근린공원을 서남권 '하이드파크'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 신구로선 추진, 재개발 속도전
• 재개발 갈등 지역 법률·갈등 조정 전문가 우선 투입

개봉1동 "남부순환로 평탄화가 완공됐습니다. 그 다음 4년은 달라야 합니다"
•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완공 성과 연계, 신구로선 직접 수혜지역 최우선
• 재개발 속도전, 변호사 구청장 직접 현장 진단
• 목동 학원가 접근 저녁 버스노선 신설 추진
• 아파트 옆 데이터센터 일방 추진 제동!
• 변호사 구청장의 '법률 감사' 및 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 추진

개봉2·3동 "목감천이 양재천만큼 될 수 있습니다. 흥덕회가 그 길을 엽니다"
• 개봉역 복합개발과 목감천 수변공원화(양재천급 업그레이드) 추진
• 역 주변 간판·보행·불법 적치물·노후 상가 환경 개선 함께 추진
• GTX-B 환기구 관련 주민 설명회 의무화, 전자파·소음 영향 실측 공개, 주민 협의체 설치, 재개발 속도전

오류1·2동 "경인선 지하화 얘기만 들어오셨죠? 지금 당장 생활을 바꾸겠습니다"
• 동부제강 복합개발 촉진 — 행정 협력 속도전
• GTX-D 오류동역 유치 적극 추진
• 쇼핑몰·영화관 등 일상 생활편의시설 확충
• 주택가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주민 안전 보장 협약' 의무화 및 주거지 인근 건립 제한 조례 제정

수궁동 "운수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그들은 왜 못했습니까. 흥덕회가 완료하겠습니다"
• 운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 운수산단 '구로판 허드슨야드' 복합개발
• 체육센터,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신설 추진

항동 "학원가 라이딩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 신구로선 항동 연결 최우선
• 목동 학원가 접근 버스 신설(저녁 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구로 을 행정계약서

지체된 구로 을의 시간,
변호사의 실행력으로 앞당깁니다

신도림동 "신도림역은 서울의 손꼽히는 환승역, 그러나 신도림동 주민 삶은 얼마나 좋아지셨습니까"
• 디큐브시티 후속 대책 마련
• 신도림 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신속 추진
• 1호선·2호선 환승 동선 획기적 개선 및 역세권 상권 활성화
• 버스, 마을버스 노선 개선 및 공공 셔틀버스 추진
• 운전면허학원 부지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목동 접근성 개선

구로 1·2동 "구로역이 바뀌면 구로1·2동이 바뀝니다"
• 구로역 리모델링(동서 측 출입구 신설, 역사 증축) 서울시 협의 재개
• 구로철도 기지창 상부 데크 활용 — 녹지, 문화, 상업 공간 연결
• 구로역지하차도 평면화 가능성을 포함한 교통 체계 개선 추진
• 구로역 일대 병목 구간 정비와 보행·차량 동선 재설계 추진

구로3동 "G밸리의 심장에 삽니다. 그 성과는 구민에게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 G밸리 기업 법률 닥터,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 AI·사이버 보안 특화 산업거점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 G밸리 청년 취업 사다리 강화

구로4·5동 "구로 서남부에서 아르면 어디 가십니까? 민주당 구정으로 달라지게 있습니까?"
• 구로시장 환경 개선, 주차·보행·간판·청결 정비
• 국제음식문화거리 상권 활성화
• 공공복합청사 건립 신속 추진
•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리모델링 신속 추진
• 자영업 밀착형 민생 지원 — 법률·세무 현장 상담 강화

가리봉동 "가리봉동은 무질서한 동네가 아닙니다. 정비만 되면 서래마을을 이성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청결 강화, 거리 및 보행 환경 전면 정비, 국제 상권 리디자인, 내·외국인 상생 순찰대 운영으로 치안 강화
• AI 기반 지능형 CCTV 전면 확대, 다문화 갈등 조정 센터 설립
• 글로벌 푸드 투어 콘텐츠 개발 — 다문화 음식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육성



홍덕희 2

구로의 얽힌 현안

말이 아니라 법과 행정의 실력으로 풀 사람

구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복잡한 재개발과 교통, 교육격차와 민생의 매듭을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실무형 구청장입니다.
홍덕희는 변호사의 원칙, 행정가의 실행, 공공의 책임을 함께 갖춘 후보입니다.

1. 변호사라서 다릅니다

구로의 재개발 지연, 동의서 분쟁, 조합 갈등, 세입자 불안, 소상공인 계약 문제는 결국 법률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홍덕희는 현장을 설명으로 덮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 쟁점을 진단하고 실제 해법을 제시하는 변호사형 구청장입니다.

2. 행정을 알아서 다릅니다

홍덕희는 법률가이면서도 지방 행정 경험을 가진 실무형 인물입니다. 행정은 구호가 아니라 예산, 절차, 협의, 인허가, 갈등 조정의 연속이며, 구청장은 바로 그 복잡한 구조를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3. 공공 경험이 있어 다릅니다

국선번호, 소송구조, 행정심판, 시민권익 관련 활동은 약자의 억울함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입니다. 홍덕희는 보여주기식 정치보다, 주민의 억울함을 줄이고 권리를 지키는 행정을 더 잘 아는 후보입니다.

4. 계약을 말해서 다릅니다

홍덕희에게 공약은 듣기 좋은 약속이 아니라, 임기 안에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권한 안의 공약은 이행 로드맵과 연차별 점검 보고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습니다.

판 결 문

사 건 2026지방선거0603 구로 발전방치 및 회망고문 책임 사건
원 고 41만 구로구민
피 고 지난 수십년, 구로의 성장을 가로막은 기득권

주 문

- 피고는 구로구 정치에서 즉각 퇴거한다.
- 원고(구로구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기호 2번 홍덕희를 새로운 구로구청장으로 선임한다.
- 본 판결은 2026년 6월 3일 투표 종료와 동시에 확정된다.

이 유

- 피고의 직무 유기**
피고는 구로의 권력을 20년간 독점하면서도 재개발을 방지하고, 실현 불가능한 차량기지 이전으로 구민을 기망하였으며, 교육 격차를 외면해 젊은 세대가 구로를 떠나게 한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 새로운 구청장 홍덕희의 적격성 (도립천 소년의 궤적)**
새로운 구청장으로 선임되는 홍덕희는 이 임무를 수행할 가장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는 양복걸 계단사 아버지와 미성사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도립천 독방길 단칸방에서 자란 '서민의 아들'이다. 사채업자에게 감금되어 시달리던 바람 끝 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독학으로 준비하며 변호사로 우뚝 섰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가장 낮은 곳에서 국선·소송구조 변호사로도 활동하며 서민의 곁을 지켜온 그의 뜻은, 이제 41만 구로구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 결론**
정치인들의 말뿐인 '약속'은 파산했다. 이제 구로의 모든 얽힌 매듭을 풀어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변호사 홍덕희의 '약속을 넘는 계약'을 승인한다.

선 고 일 | 2026년 6월 3일

재 판 장 | 구로구 유권자 일동



- 학력** 서울 대동초등학교 졸업
서울 영남중학교 졸업
서울 강서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졸업(수사과학석사)
- 이력** 현) 법률사무소 예승 대표변호사
현)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현)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현) 충청향우회 구로구연합회 부회장
전)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전) 밀양시청 일반민기제 지방행정주사(변호사)
전)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정책총괄본부
교육선진화본부단장

홍덕희 2

기호2번, "여러분의 변호사 홍덕희를 고용해주세요"